

##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허수아비 취급”

여수 국동 주민대책위 집회신고 등 강력 투쟁  
대지 지목 변경 전 숙박시설 건축허가 가우뚱

〈속보〉국유재산인 멸절한 도로를 주민들 모르게 용도폐지하고 대지로 지목을 바꾼 뒤 이 부지를 건설업체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본지 지난 1일자 9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우리가 허수아비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 국동 156-2번지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원상회복주민대책위원회 최상길 위원장은 7일 “주민들이 평소 잘 다니는 도로를 여수시가 용도폐지한 뒤 대지로 변경해, 결국 이 부지가 매각됐고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

어서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회신고는 물론 여수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통해 진상을 밝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원들과 여수시 관련부서 관계자가 지난 2일 국동주민센터에서 만났으나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마찰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은 지목변경에 동의해준 주민이 누구인지 밝히고 대책위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 도시시설사업단도 로관리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따라 제3자의 이의신청 등에 기일이 소요되므로 5월 초 부분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국동 일원 현장을 찾은 이상우 여수시의원은 “당초 지목상 도로에서 대지로 바뀐 부분이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가장자리인 줄 알았으나 직접 와보니 건축부지 거의 한가운데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건설업 관련업체가 용도폐지를 신청한 것이 2017년 12월 5일, 이후 도로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이 2018년 2월 7일, 기획재정부 자산관리공사 인계일은 2018년 2월 9일”이라면서 “그런데 건축허가 날짜가 지

목 변경 전인 2018년 1월 31일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여수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이를 취합, 심의 일정 조정, 건축허가를 위한 여수시경관건축공동위원회 개최, 허가 등에 한 달 정도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2017년 12월 19일 여수시경관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당시 주변 여건,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건축에 대한 문제가 없어 2018년 1월 31일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 광양-러시아 아스트라한시 우호도시 체결

교육·농업·관광 등 교류  
북유럽 경제협력 루트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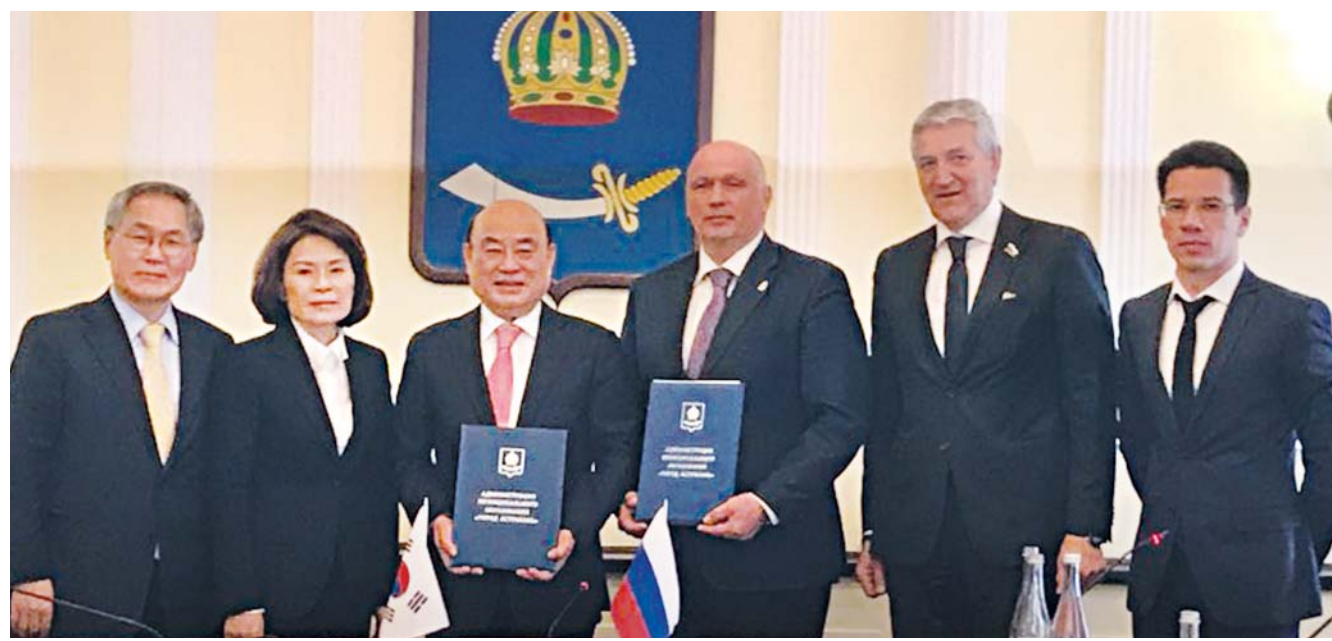
광양시가 최근 러시아 카스피해 연안 항구도시 아스트라한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현복 광양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양시 대표단의 최근 러시아 방문 기간 중 이뤄졌다.

양 도시의 인연은 지난해 8월 주러시아한국대사관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상호 의견교환을 거쳐 우호도시 협약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우윤근 주러시아한국대사,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 아스트라한주지사 등 양 도시 관계자와 축하 내·외빈, 현지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라디크 카리소프 아스트라한시 행정부 대표와 우호도시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제·무역 교류와 상호 투자유치, 교육·청소년·농업·관광 등 분야별 교류협력,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상호 협력하



광양시는 최근 러시아 카스피해 연안 항구도시 아스트라한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제공

기로 했다.

아스트라한시는 러시아 연방 남서부 아스트라한주의 주도로서, 카스피해로부터 100km 떨어진 불가강의 삼각주에 위치해 예로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규모 교역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수산업과 제조업, 선박수리업이 발전한 물류·항만 산업의 도시이자 유명한 관

광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현복 광양시장은 “한국정부의 신북방정책인 ‘나인 브릿지’ 발표 이후 한·러 양국 간 활발한 협력력이 지방정부 간의 국제교류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양 도시의 경쟁력과 공통점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

라”고 말했다.

라디크 카리소프 아스트라한시 행정부 대표는 “철강·항만 산업과 경제자유구역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광양시와의 교류는 아스트라한시가 러시아의 경제, 물류·문화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동부취재본부=정상명 기자

## 고흥산 생김 2년 연속 위판액 1천억 돌파

생산목표 초과 달성

고흥군에서 생산한 생김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위판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김양식 어업은 1만193ha면적에서 10만1,930척을 시설해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 위판장을 통해 2019년산 생김을 위탁 판매하고 있다. 고흥산 생김이 2년 연속 위판액 1,000

억원을 돌파하게 된 이유는 민선 7기 고흥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소득 3,000만원 시대’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양식 기반사업 지원, 고품질 생산을 위한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 또 김 생산에 적합한 수온 및 해양환경 조성으로 인한 김 작황이 좋고 갯벌 등 병해가 발생하지 않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고흥군은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김 우량종자 개발 및 친환경부표지시 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원의 사업비를 김양식 어가에 지원함으로써 전국 김생산량 80%를 차지하는 김양식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 공방전 접고 상생의 묘수 찾아야

기지수첩



김근중  
동부취재본부장

순천만 정원박람회장과 갈대밭을 운행하는 소형 경전철(PRT) 스키야쿠브 사업을 놓고 순천시와 포스코 자회사 ㈜에코트랜스 간 불협사나운 공방전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포스코의 정책 판단 오류를 순천시에 떠넘기려는 거대기업의 갑질 횡포라고 주장하는 순천시와 지자체장이 바뀔때 마다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하는 ㈜에코트랜스 측은 입장 차가 팽팽하다.

순천시와 ㈜에코트랜스의 ‘네 탓’ 공방과 함께 서로의 치부를 들춰 보이는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자 투입 당시 협약 내용과 변경을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업체가 순천시에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한 것을 볼 때 지자체장들이 원칙과 현실을 의식하지 않고 임기 내 치적만을 앞세운 결과가 아닐까 짐작해 본다.

특히 에코트랜스는 순천시가 협약을 위반했다며 1,367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했다고 하니 현명하게 판단해 시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게끔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순천시의 대응이 불안하다. 허석 시장이 자청해 기자회견을 하고 광장토론회 실시와 함께 동네마다 ‘거대기업 포스코는 각성하라’를 새긴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들먹여리는 것이 순천시의 대응방식이다.

당초 협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적자가 예상되며 조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에코트랜스 측이 철거비 200억+α를 요구한 순천시의 명확한 입장과 법적 근거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또한 순천시는 전임 시장들이 에코트랜스와 체결한 MOA(업무협약)나 공문서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업무협약서상 독소 조항이 있어 순천시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직인이 날인했다면 법적 효력을 먼저 따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에코트랜스측이 30년 운영 후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스키야쿠브가 사업을 포기하며 오히려 해지지급금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면 나름 법적근거인 모든 문서를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양측 협의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경쟁 대응에 나선 허석 시장은 정확한 판단력과 공직자들의 지혜를 모아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립과 반목보다는 슬기로운 행정력을 발휘해 대기업 입주나 민자 투자에 시민적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여주시청 현관 ‘인공지능 안내로봇’ 배치

여수시가 시청 현관에 인공지능 안내로봇을 배치, 오는 9월 안내로봇 오픈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안내로봇 제원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50, 570, 1,650mm이며 여수시 안내와 방문객 어울림 기능을 갖추고 있다. 로봇 머리에는 카메라, 스피커가 설치돼 있고, 화면에 나타난 얼굴 표정으로 감정도 표현한다.

몸통에 설치된 32인치 모니터에는 여수시 소개, 직원·부서 조회,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풍성 정보를 방문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보 입력은 음성과 키보드 모두 가능하다. 여주시청 직원의 소속과 연락처를 알고 싶다면 메뉴를 누르고 이름을 말하면 된다.

또한 로봇이 직접 찍어주는 기념사진을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음악과 함께 귀여운 로봇 댄스도 만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내로봇이 4차 산업혁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풍성 정보를 방문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클릭! 고흥 소식



### 순천대-호남원예고 업무협약

순천대 농업과학교육원은 최근 생명산업과학대학에서 배창후 농업과학 교육원장과 김찬중 호남원예고등학교 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원예고등학교와 농업 교육 및 실

습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대 농업과학교육원은 농업 인재 양성 등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 증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 고흥 드림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

고흥군은 지난 1일부터 고흥·도양 드림스타트 2개소에 관내 고등학교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드림스타트 동 20여 명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생활 문제나 친구 관계 등 어려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보는 정서적 지지활동으로 진행된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 곡성 ‘교통안전 특별주간’ 캠페인

곡성군은 최근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아 곡성출발에서 곡성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전운전 홍보 전단지 배부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해 군민들에게 주의 운전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